



해외양돈뉴스

- 홍 보 부 -

1월 돼지고기 통관 11% 감소한 3만 365톤, 한국 냉장육 대폭 증가

'98년 1월의 돼지고기 통관량은 냉장이 8천715톤(전년동월비 7.2%감소), 냉동이 2만1천649톤(동 12.5%감소), 계 3만365톤으로 전년 동월비 11.0%가 감소하였다.

냉장은 미국이 동 45.2%가 증가한 6천541톤으로 75%를 점유하고 다음이 캐나다로 129.5%가 증가한 1천173톤이고, 한국은 298.6%나 대폭 증가한 845톤이었다.

한편 냉동은 한국이 418.1%나 크게 증가한 7천664톤이었는데, 이는 냉동육 전체수입의 34.9%로 1위이다.

'98년 7월까지 육돈출하 매월 1~3% 증가 예측

일본 농수성 축산국이 지난 3월 27일 공표한 '98년 2~7월의 육돈출하 예측에 의하면 매월마다 육돈의 출하두수가 1~3%의 폭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월은 1%증가한 136만6천두, 3월은 3%증가한 144만3천두, 4, 5월은 140만두(동 2%증가), 6, 7월은 130만두로 각 1%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산 돈육 후지비중 높아져

지난해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산 돈육부위중 후지 비중이 수출국중 15.7%로 최고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도 지난해 유형을 토대로 했을 때 한국산 돈육 후지부위의 일본 수출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는 대만산 후지 수출분의 대부분을 한국이 차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식육무역연구소에 의하면 지난해 일본이 수입한 돈육 부위중 목살과 후지부위가 '96년도에 비해 줄어 들었다. 반면, 삼겹살의 등심비율이 높은 것은 고급 육가공제품인 솔더햄과 베이컨 생산을 위한 원료육 수입으로 전환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캐나다산 '올가 포크' 냉장수입

(주)미트센타 후조사는 캐나다에서 생산하고 있는 '올가닉 포크(유기포크)'의 수입판매를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수입된 돈육은 내츄럴포크(natural pork)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는데 완전 올가닉(유기) 사육생산물이고, 더구나 냉장으로의 수입은 첫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일본내에서도 축산관련 상품의 식품안전이 강하게 요구되면서 유기(有機) 및 자연(自然)개념

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대한(對韓) 농산물 수출보증(GSM) 4억불 추가배정

덴 글리크먼 미 농무부장관은 지난 4월 20일 한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신용보증자금 4억달러를 추가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한국정부와 관련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98회계년도 기간에 제공하기로 한 GSM 10억달러와 추가 1억달러 이후에 다시 추가로 제공되어진 것이다.

글리크먼 장관은 추가배정 자금의 항목별 할당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미국산 농산물의 대한(對韓) 수출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글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정부가 제공할 GSM 자금은 지난해의 10억 달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료곡물 등 원자재 구입에 사용될 것"이라며 "미국측이 확대를 요구하는 육류 구입액은 지난해와 같이 전체 자금의 1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GSM-102는 미국 농무부 산하 상품신용공사(CCC)가 미국산 곡물류 등의 수출촉진을 위해 수입자에게 지급보증 해주는 것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의 단기 지급보증이다.

농무부의 이번 추가 배정으로 한국은 올해 모두 15억 달러의 농산물 수출신용보증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의 4번째 농축산물 수출시장인 한국은 작년에 33억 달러의 미국산 농축산물을 수입했다.

양돈업자들, '한국 수출신용보증' 축소 촉구

미국 양돈업자들이 미농무부에 대해 대한 수

출신용보증(GSM-102)을 늘리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미국 양돈업자들이 미농무부가 한국에 제공하는 수출신용보증에 사료 곡물 구매에 많이 할당됨으로써 미국 축산업자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수출신용보증을 더 늘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이 지난주 입수한 양돈업자들의 미농무부 제출서류에 따르면 미국 양돈업자들은 대한 수출신용보증의 대부분이 사료곡물판매에 할당돼 있어 한국 축산농가들이 이들 사료곡물로 키운 돼지 등이 미국의 최대 축산물시장인 일본에 수출되는 등 미국 축산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돼지 사육두수 6% 증가

올 3월 1일 현재 미국의 총 돼지 사육두수는 연초보다 6% 증가한 5천9백만두로 나타났다. USMEF는 최근 미국농무부(USDA)가 발표한 돼지 및 돈육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밝히고 모돈은 3%, 돈육 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98년 중반까지는 순조로운 수익과 사료저가 전망으로 활기 예측

'9월 돈관측'에 의거 미국 '98년 돈육생산은 전년대비 9%의 신장이 예측되고 있다. 9월까지의 생돈가격이 비교적 고가추세로 생산자이익이 순조로웠던 것과, 앞으로도 사료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양돈농가는 생산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98년 4/4분기(10~12월) 도축은 2천 620만두로 전년동기비 8% 증가하게 된다. 지난 '97년 9월 당초의 냉동돈육 재고는 국내소비와 수출수요의 정체로 전년동기비 16%나 증가한

16만9천톤의 고수준이었다. 특히 후지가 5만2천톤으로 전년비 39%증가함에 따라 계절적으로 상승하는 가격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대일수출도 이루어져 재고는 감소하고 생산증가는 예측되나 가격은 전년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국면은 피하게 될 전망이다.

대만 WTO 가입 성사될 듯

국제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미국·대만 간 쌍무협상이 타결돼 대만의 WTO 가입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무역대표부(USTR)는 미·대만간의 포괄적인 시장접근협정이 체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럽연합(EU)과 스위스와의 쌍무협상이 종결되면 곧바로 대만의 WTO 가입의 정서와 작업반 보고서에 대한 협상을 벌여 이를 채택함으로써 대만의 WTO 가입이 이루어진다.

구제역 재발생, 12~1월에 12건 695두에 발증

일본 농수성 축산국이 대만 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작년 12월 10일에 5개월만에 돼지 구제역 재발생이래 금년 1월말까지 8개현·시에서 12건 695두가 발증하여 4두가 죽은 것이 판명되었다. 대만의 구제역은 97년 3월 19일에 처음 발생, 7월 15일을 끝으로 발생이 정지되었으나 12월에 재발생되었다. 구제역의 계속적인 백신접종으로 발생이 억제되어 오다가 비 정기적인 접종으로 전환하고 있어 재발생의 대부분이 구제역 백신 미접종으로 보인다.

농수성에 의하면 2월 10일 현재로 2월에 와서는 발생했다는 정보는 없지만 아직 완전히 종식되었는지 어떤지 금후에도 재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하고 위생관계의 전문가는 보고 있다.

아시아 경제위기에 불구하고 꾸준한 축산 시장 호전 예상

경제 고성장을 구가하던 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들고 있지만 이들의 축산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이들의 축산물 수요 증가세는 세계 축산물 시장 경기를 떠받쳐주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 가운데 치즈와 고부가가치 가공제품 수요는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주요 축산품 가격은 명목가격으로 상승하겠지만 실질가격으로 점차 하락안정세를 보이든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FAO 유럽 동물전염병 위기 경고

세계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는 유럽이 동물위생정책을 강화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심각한 동물질병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FAO의 가레스 데이비스 동물위생전문가는 화요일 한 기자회견에서 EU는 장거리 동물수송을 억제하는 등 현재의 가축류 산업을 개혁하지 않으면 장차 동물전염병 발생 빈도수가 높아져 그로 인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15개 주요 가축전염병 가운데 9개가 유럽에서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EU 국가 가운데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스페인이 돼지콜레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국 세계 육류 수출국들, 육류 수입반대 운동에 긴장

영국 축산농민들이 벌이고 있는 육류와 육제품수입 반대운동이 조직화되며 힘을 더하고 있

어,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을 비롯해 남아메리카의 육류 수출국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뉴질랜드 등 EU 지역의 육류 수출국들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영국의 육류와 육제품 수입반대 운동은 작년 12월초 항구봉쇄 시위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조직화되면서 축산농민들은 주요 슈퍼마켓의 배달서비스를 방해하거나 햄버거 체인 등 육가공제품 제조업체들의 활동을 방해하며 시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육류와 육제품 수입반대 운동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호응도 또한 높아가고 있다.

광우병 소 울 가을까지 도태

영국 정부는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영국 내 소들에 대한 도태 작업을 올 가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지난 3월 21일 발표했다. 영국은 지난 '96년 6월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의 합의에 따라 30개월 이상된 소들의 전면 도살작업에 들어가 지금까지 2백만두 이상을 살처분했다.

네덜란드 수돼지 1두당 모든 68두로 세계 최다 보유

국제 양돈 전문지인 PIG INTERNATIONAL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인공수정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수돼지 1두당 모든 보유비율이 높아 인공수정이 중부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수돼지 1두당 모든 68두로 가장 많은 모든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벨기에와 스웨덴이 41두, 아일랜드가 36두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유럽각국의 수돼지 1두당 모든 보유비율이 인공수정 활용 덕분에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돼지콜레라 재발

네덜란드 농업장관 Josias van Artsen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돼지 콜레라(Swine Fever)가 재발되었다고 발표했다. 발생지역은 에스카렌, 동브라반트 지역으로 돈육 1천2백마리가 또다시 도살되었으며 최초 발병 이래 425번째 건으로 최소한 3개월간 수출이 재개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대독일 수출 최다, 수출총량의 23.5%

'97년 1~9월 덴마크의 돈수출은 105만5천톤으로 전년비 12만3천톤이 증가하였다.

대독일 수출은 매년 증가해 1~9월 24만8천톤으로 수출총량의 23.5%에 달한다. 또한 생돈수출도 많다. 종래 수출선 1위였던 대영국 수출량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EU지역 외의 수출선 1위는 일본이었으나 한국수출도 수입개방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 육류수출 대폭 증가

'97년 1~10월까지 스웨덴의 육류수출은 대폭 증가하였다. 스웨덴 육류마케팅 협회(Swedish Co-operative Meat Marketing Association : SCMMA) 통계에 의하면 돈육은 22%, 쇠고기는 29% 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은 12억 스웨덴 크론(SKR, ECU 136.2백만)에 달했다.

물량으로 볼때 스웨덴의 돈육(가공품 포함)수출은 '97. 1~10월까지 41,500톤인데, 그중 스웨덴 돈육의 최대 수입국인 독일로의 수출량은 9,800톤으로 197%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프랑스가 5,600톤(2배 증가), 이탈리아 3,800톤, 덴마크 2,900톤이나 핀란드의 경우 40% 감소된 2,800톤에 머물렀다. **養豚**